

순천 33도 ... 여름, 너 벌써 왔구나

전남 일부 지역 올 첫 폭염 특보

여름 무더위와 전쟁 본격 시작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다.

광주·전남지역의 올 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폭염 일수가 10일 이상 늘어남은 물론 평균 기온마저 높아 지역민들의 여름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순천·광양·구례·곡성 등 전남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이 주의보는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올 들어 처음으로 습도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이 적용됐다.

4일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1도, 순천 33.6도, 광양 32.8도, 구례 33.4도 곡성 33.2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와 낮 동안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오는 6일에는 상대적으로 찬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폭염특보 기준에는 미달되었으나 7~9일까지 광주와 전남내륙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다음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9도)과 작년(24.1도)보다 0.5~1.5도 높고,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더위가 절정해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염 예상일수는 지난해 12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광주가 20~25일로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은 12~17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열대야 예상일수도 광주·전남이 17~22일로 평년과 지난해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 건강수칙으로는 우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메스꺼움·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오후시간대(정오~오후 5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자와 월광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70~9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2.1도를 기록한 4일 오후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치는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분수대 앞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6일에는 상대적으로 찬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폭염특보 기준에는 미달되었으나 7~9일까지 광주와 전남내륙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두환 사망 때 국가장 불가 5·18 계엄군 현충원서 파묘

5·18 바로 세우기 법안 본격화

전두환이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뒤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등 5·18바로 세우기 법안이 본격화 된다.

이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일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장 적용을 배제한다. 전두환의 국가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반란모의참여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전두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문제가 되는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과 현충원 파묘 등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계엄군의 유공자 박탈과 국립묘지 파묘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73명이 돼 있고, 이 중 56명은 어떠한 심의절차도 밟지 않고 19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존처에 제출한 확인서 한 장을 유일한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동안 각종 예우를 받았다. 이들 중 많게는 6억4000만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과 보상금 등으로 수렁한 사람도 있다. 또 사망한 31명 중 30명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1명은 국립묘지 안장 동의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생존자 42명도 유족들이 원할 경우 사후 국립현충원에 묻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또 국립묘지설치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들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자들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이들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의 법안은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5·18바로 세우기 법안 등도 공동발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외국처벌법은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추후 대표발의 의원을 정할 방침이다. 남은 6개 법안은 개별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5·18운동 공법단체화법)은 이웅빈(광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5·1871년재단 재정 지원 등)은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맡아서 발의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北 김여정 대북전단 맹비난 ... 통일부 "살포 중단 법률안 준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빼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여성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월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시민로 3
전석무료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 인터넷예약 |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티켓링크
| 전화예약 | 062)613-8379/8372

|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주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Gwangju Culture & Art Center | 관람 | 만4세이상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